



[금융] 금융권 디지털 전환 올인 올 5845억 투자 04



Economy

코스피	2081.84 (+2.83)	코스닥	710.16 (+1.36)
금리 (미국 3년)	1.71 (-0.01)	환율 (원/달러)	1189.40 (+1.90) (14일)

젊어지는 재계... 현대차 등 총수 공식 세대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임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오늘 대기업집단 발표

현대차 정의선, LG그룹 구광모 안정적 경영으로 총수 안착
박정원, 실적부진 속 경영 맡아
조원태, 한진家 신뢰회복 과제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가 40~50대로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선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들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도 지정한다.

공정위는 애초 5월 1일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하려 했지만 한진그룹 문제로 두 차례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13일 오후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들의 총수들의 얼굴도 한층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LG그룹은 구광모, 두산그룹은 박정원, 한진그룹은 조원태가 총수로 바뀌면서 재계 전반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의선·구광모 경영 능력 합격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서며 회사 경영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대차 이사회가 지난해 하반기 정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발령하면서 정 부회장의 그룹 내 위상도 높아졌다.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 인사권을 비롯해 경영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빠르게 실적 개선을 이끌어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 1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02만1377대를 팔아 매출 23조9871억원, 영업이익 8249억원, 분기순이익 9538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이 가운데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7%(1조550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경영 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이 기간 21.1%(1436억원), 분기순이익은 30.3%(2222억원) 급증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 지휘봉을 잡은 이후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과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

재계는 정 수석부회장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가 미래 전략차량으로 수소전기차량을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 전기차는 기존 전기차 대체제로 등장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친환경차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그룹 지주사인 (주)LG의 대표이사 회장에 오른 구광모 회장은 안정적인 지분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4세경영을 본격화했다. 구 회장은 취임 후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를 분리하면서 투명경영을 강화한 가운데, 평소 정보통신기술(ICT)에 큰 관심을 보인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계열사에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룹을 이끌고 있는 LG화학은 지난해 각종 약재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LG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가 살아야 경제 산다”

文대통령, 中企인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이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대회는 올해로 30회(1990년 시작)를 맞이한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꼽힌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과 함께 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이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며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이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연말아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및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ICT(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융합, 금융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하면 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로 시행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

신동빈, 재계 최초 美 트럼프 대통령 면담

롯데 대규모 투자에 트럼프 화답

루이지애나주에 3.6조 규모 공장 준공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재계 총수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측에선 조윤제 주미대사와 김교현 롯데 화학 BU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미국 측에선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난 9일 준공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에탄크래커 공장에 대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화답한 후 생산품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회장이 롯데그룹 사업 현황과 롯데뉴욕팰리스호텔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투자였다.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부터),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김교현 롯데화학BU장, 조윤제 주미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 회장의 오벌오피스 면담은 30여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이며,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집무실 안 결단의 책상(미국 대통령 전용 책상)에 앉아 신 회장과 면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시했다.

롯데는 지난 9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에탄크래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투입된 사업비는 총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 투자이다. 역대 한국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